

第二十四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致

辭

文化公報部長官

親愛하는 慶尙北道 道民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뜻깊은 겨레의 祝祭를 빛내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準備를 해오신 全國 各市道 出演者와 内外 貴賓 여러분.

스물네번째를 맞는 오늘이 大會는 當初 18일로 豫定되었던 것입니다. 마는, 그동안 우리들이 겪어야 했던 악랄하고 야만적인 北傀暴力集團에 의한 衝擊的인 慘事로 인해 不得已 오늘로 미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지금의 心境은 아직도 이번 事件으로 인한 憤怒와 아픔과 심한 衝擊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國家元首의 弑害를 노려 異國땅 異民族앞에서 까지 서슴없이 流血慘劇을 벌인 北傀犯罪集團의 反民族的·反文明的 狂態는 참으로 痛憤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런것으로 우리를 顛覆할수 있다고 믿은 저들의 어리석음과 精神倒錯을 아울러 慨歎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先進圈으로 進入하려는 마당에 저들의 原色的인 暴力에 의해 우리의 즐기찬 平和統一 意志와 國家發展에의 進運이 추호도 遲滯되거나 꺾일수는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버마慘禍로해서 우리는 아까운 國家的 人材들을 多數 잃어 이 사람은 지금도 哀悼하는 마음을 禁할수 없습니다마는, 그런가운데서도 우리의 國家元首이신 大統領閣下께서 無事하신것은 하늘이 돌보신 國運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 事件으로 우리 國民들이 받은 衝擊은 매우 컸으나 우리 國民들의 꺾이지 않는 意志와 勇氣, 그리고 明哲한 슬기는 事態를 短時間內에 추호의 動요없이 침착하게 收拾해냈으며, 오히려 轉禍爲福의 決定的 契機로 까지 이를 昇華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번 狂態는 한마디로 저들 内部의 政治的、經濟的、外交的 失敗와 挫折、無力感和 葛藤에서 오는 焦燥와 當惑속에서 저질러진 体制末期的 發惡이라 하겠읍니다.

저들의 赤化統一政策이 國內外的으로 完全 失敗함에 따라 저들은 이제 赤化革命手段을 全的으로 原色的인 暴力狂態에 依存함으로써 韓半島에 恐怖와 危機를 造成코자 企圖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저들의 赤化革命戰略의 戰術的 變化로 보여지는 이같은 企圖는 우리들의 鐵桶같은 對備로 徹底히 粉碎되어야 할것이고 또 粉碎될것이며, 저들의 이같은 어리석은 反民族的 暴力企圖는 결국 스스로의 終末을 재촉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實證的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北韓共產集團의 無謀한 赤化革命戰略을 窮極的으로 沈黙시키는 것은 우리의 國力伸張을 基盤으로 對內外的인 統一力量을 強化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힘을 길러야 할것이고 國民的 團음을 促進해야 할것이고 北傀의 어떠한 暴力的 企圖에도 對備할수 있는 물샬틈없는 態勢를 點檢、強化해야 할것입니다。

平和는 본시 우리民族이 悠久한 歷史를 통해 一貫되게 追求하고 實踐해 온 至上의 價値입니다。

그러나 民族史의 기나긴 試鍊과 이의 克服을 통해 우리 民族은 平和가 愛好나 希求만으로는 確保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爭取하고 維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破壞하려는 暴力을 制壓할 수 있는 莫強한, 그러나 節制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徹底히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마당에서 펼쳐질 가장 우리 다음을 간직하고 있는 傳統的인 놀이 문화도 바로 이 國民的 힘의 源泉이 되는 民族的 신바람을 再現하고 和合의 霧圉氣를 造成하는 出發點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素朴한 바람입니다.

우리의 놀이 문화는 葛藤과 憎惡를 次元 높은 諧謔과 諷刺로 昇華시킬 줄 아는 너그러운 문화이며, 웃음과 餘裕로 野蠻性과 殘忍性을 屈服시킬 줄 아는 人間的인 문화이며, 그러면서도 끈질긴 生命力과 힘을 지닌 忍耐와 克服의

文化입니다。 그것이 追求하는 世界는 爭鬪와 葛藤이 아닌 和同과 悅樂의 世界입니다。

北韓共產集團과 같이 暴力革命을 위해 葛藤과 憎惡를 極限化시키고 流血과 恐怖를 서슴지 않는 陰險한 文化는 分明코 우리民族의 正統에 속하지 않는 異端文化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正統文化를 威脅하는 이 破壞的 異端文化를 主体的인 文化力量으로 克服해야 될 責務를 또한 지니고 있다 하겠읍니다。

그것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運命共同체로서의 우리民族이 놀이 文化속에 連綿히 간직해온 平和의 傳統과 和同의 精神、 그리고 格調높은 휴머니즘이 그 眞面目을 보여야 할 時期이며、 우리의 繁榮·統一에의 믿음으로 祭

儀와 祭典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야 할 時期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우리이게하는 民族的 正統性和 文化的 主体性을 다시 한번 더 確認하고, 이 價値를 지켜야 할 우리의 決意를 더욱 굳게 다져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始作되는 이 祭典은 우리 國民 모두가 한데 어울려 祖上의 숨결과 鄉土의 脈搏을 다시 느껴보는 자리이며, 어떠한 野蠻性和 暴力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고 이를 克服해 낼 民族的 生命力的 뿌리를 確認해 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民俗놀이 의 祭典에 대한 이 사람의 所望은 유달리 큼니다。

무엇보다도 이 祭典이 祭典만의 場을 벗어나 보다 넓게、國民 모두의 집 안마당과 그 마음속으로 擴張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民俗學者들과 民俗藝術人들의 오랜 刻苦와 献身을 通해서 지금 우리는 사뭇 많은 잃었던 民族의 傳統的 놀이와 民俗들을 되살려 놓으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할 일은 여기에 恒久的인 生命力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를 오늘을 사는 모든 겨레의 現實的 삶속에 심는 일이며、그것을 이 祭典의 格式을 넘어 全國民의 마음의 空間으로까지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實質的인 民族의 된 土壤이며, 其의 精神的 主体的 土壤의 再生作業이 될 것입니다.

最近의 잇달은 國家的 試鍊을 던고 오늘 이 자리에서 始作되는 이번 祭典은 이러한 民族精神의 蘇生作業의 劃期的인 새 出發點이기를 이 사람은 간절히 바랍니다.

더우기 오늘의 이 마당은 우리의 代表的인 文化圈의 하나이며, 옛부터 나라의 대들보감이 될만한 곳곳한 선비를 無數히 輩出한 忠節의 文鄉, 安東 땅입니다. 陶山書院이 있고 河回마을이 있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傳統놀이인 河回別神굿 놀이와 줄불놀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傳統이 생생히 살아있는 安東에서 이祭典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所
望과 希求가 祝福을 받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慶北道民과 安東市民、 그리고 全國의 民俗藝術人 여러분！

올해의 이祭典이 어느해 보다도 뜻깊고 豐盛한 祭典이 되기를 祈願하면
서 출연자 여러분께서는 平素에 같고 닦은 技倆을 유감없이 發揮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3年10月21日

文化公報部長官

李

振

羲